

L-페닐알라닌 특허 획득

미원, 생산성 2배 향상 ... 세계시장 진출 가속화

미원(대표 유영학)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L-페닐알라닌 제조방법에 관한 신기술」 특허를 획득했다.

미원이 획득한 L-페닐알라닌 제조기술은 E-콜라균주를 이용한 것이다.

특히 L-페닐알라닌 제조기술의 특허는 미원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발효기술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개발, 기존의 제조방법에 비해 생산성을 2배이상 향상시켜 대량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1년만에 특허를 획득한 L-페닐알라닌은 인체에 필요한 필수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식품첨가물, 의약품, 암이나 에이즈 치료약품, 아미노산주사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첨단물질이며, 특히 미원이 생산하고 있는 기능성 저칼로리 감미료인 아스파탐의 원료물질로 사용되고 있어 아스파탐과 함께 수출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약품원료 및 아스파탐의 주원료로 공급되고 있는 L-페닐알라닌의 수요는 총 1만2000톤으로 미원을 비롯, 미국의 뉴트라스위트, 일본의 아지노모도·교와, 유럽의 홀랜드 스위트 등 10여국에서 생산되는 첨단물질이다.

미원은 91년부터 아스파탐과 L-페닐알라닌을 생산하여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 2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이번 특허획득을 계기로 세계시장 확대를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미원은 원료물질 상태인 L-페닐알라닌을 93년 100톤 수출했으며 94년에는 180톤이상 수출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1994/6/27>